

규장각 사계

OCTOBER 2020

규장각 NEWSLETT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vol. 40



규 장 각 한국학 연구 원



표지설명

『경직도(耕織圖, 古屏759.951-G995g)』의 일부입니다. 경직도는 농사짓는 일과 누에치고 비단 짜는 일을 그린 그림입니다. 경직도는 본래 중국에서 안락한 왕궁 생활에 젖어 사는 제왕에게 백성들의 삶의 이해시켜 근검절약 하고 바른 정치를 하도록 권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위의 경직도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그려진 그림입니다. 화가는 알 수 없으며, 병풍 끝의 문구와 관지(款識)를 통해 1902년 권동수(權東壽)가 찬문을 작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동수는 갑신정변 이후 김옥균 등을 암살할 목적으로 일본에 밀파되었던 관료이고, 행서와 전서에 뛰어난 서예가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경직도는 12폭의 병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그림은 일곱 번째 폭에 담겨 있습니다. 한창의 가을, 농부들은 추수를 하여 벼단을 쌓고, 이것을 소에 실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무르익은 열매를 긴 장대를 사용해 떨어뜨려 줌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을의 풍경과 농민들의 바쁜 삶을 묘사하고자 한 듯합니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 『명품도록』 212~213쪽, 249쪽 참조

규장각 칼럼

‘컬로퀴엄’, ‘씻는 거다’, 그리고 ‘우수’ 유감

04

규장각 소식

인도박물관 김양식 관장, 번암 채제공 학술기금 출연 07

집부도서 조사사업: 08

중국본 도서 조사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신진학자 초청 연구교류 사업 지원과제 선정 10

연구원 및 조교 선발 11

국제한국학센터 2020년 하반기 규장각펠로십 선발 11

규장각한국학워크숍 13

도서 나눔코너 설치 14

정보자료관리부 세척 및 지침 개정 15

국제한국학센터 학술행사

2020년도 규장각 해외 한국학 저자특강 17

제109회 규장각 컬로퀴엄 17

2020년도 제14회 규장각 여름학교 18

문화재보존관리 및 계승사업

보존처리 연구 27

규장각 도서관기

『한국문화』 91호 32

새로 읽는 우리 고전총서 32

규장각 자료총서 32

규장각
칼럼



규장각 칼럼

‘컬로퀴엄’, ‘씻는 거다’, 그리고 ‘우수’ 유감

이 현 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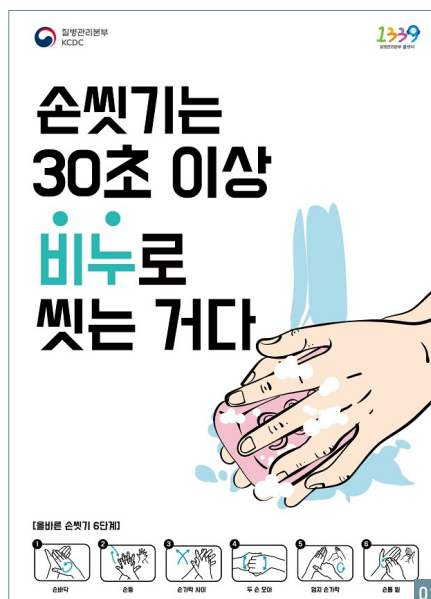
한때는 심포지엄(symposium)이 대유행을 하더니 요즘은 컬로퀴엄(colloquium)이 대유행을 하고 있다. ‘symposium’에 대한 외래어 표기가 주로 ‘심포지움’으로 되다가 ‘심포지엄’으로 정착된 것은 10년이 채 안 된다. 10년 전부터는 컬로퀴엄이 대학가에서 많이 있게 되어 지금의 대유행기에 이르렀다. 예나 지금이나 colloquium에 대한 외래어 표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차이가 없는 듯하다.

필자가 2014년 2월 초에 썼던 글의 앞부분을 아래에 인용해 본다.

우스운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자면, 일본에서는 ‘colloquium’에 대한 외래어 표기를 ‘コロキウム’로 하여 단일한 양상을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매우 다양한 표기를 보여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다. 본 발표자가 목도하고 경험한 바만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콜로키움’(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11년에는 ‘콜로키엄’), ‘콜로키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콜로퀴움’(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콜로퀴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아카이브즈 콜로퀴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콜로키엄’(奈良林愛에게서 받은 이메일) 등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한국에서 어문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에서조차 문의할 때마다 담당자에 따라 각기 다른 표기를 옳다고 대답을 하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이현희, “최근의 훈민정음 논의와 관련된 몇 문제”, 2013年度 第4回 東京大學 コリア・コロキウム, 2014년 2월 6일(목)]

2020년 현 시점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져 국립국어원에서는 ‘컬로퀴엄’을 올바른 표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표기가 사용되고 있다. 교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국제한국학센터에서만 필자의 요청으로 컬로퀴엄으로 하고 있다. ‘fellow’에 대한 외래어 표기도 ‘펠로우’에서 ‘펠로’로 바꾸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다들 방역에 큰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교내 화장실에서 “손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씻는 거다”라는 문구를 가진 게시물이 유리에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목격한다. 필자만 그런지 모르겠으나 손을 씻을 때마다 그 불친절함과 무례함에 기분이 언짢아진다. 높이지 않는 상대경어법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ㄴ 거다’와 같이 강박감이나 압박감을 주는 명사화(名詞化) 장치를 동원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손씻기’와 ‘씻는 거다’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불편해진다고 판단된다. 아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의 화장실에서는 이 문구를 보지 못한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필자는 걸어 다니면서 간혹 길바닥의 맨홀 뚜껑을 유심히 살피곤 한다. 맨홀 뚜껑에 적혀 있는 단어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에 파견되어 나가 있을 때 홍고[本郷] 캠퍼스의 맨홀 뚜껑에서 ‘東京大學’, ‘東京帝大’ 등의 글귀를 보고 나서부터인 듯하다. ‘東京帝大’라는 말이 없어진 지 언제인데 그 옛날의 맨홀 뚜껑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말인가 하고 놀랐기 때문이었다. 우리 맨홀 뚜껑에서는 ‘오수’와 ‘우수’ 같은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오수’(汚水)는 쉽게 알겠는데 ‘우수’는 무얼 가리키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설마 ‘雨水’일까 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예스폼 서식사전』에서 「맨홀 및 물받이 현황서」라는 문건을 보게 되었다. 그 문건에서 ‘오수받이’와 ‘우수받이’라는 용어를 보고서야 문제의 ‘우수’가 바로 ‘雨水’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 아하, 하수구의 기능이 생활폐수나 빗물을 처리하는 것도 있으니 그것을 갈라놓은 것이로구나! 이렇게도 쉬운 단어를 어렵게, 또 어렵게만 생각하였던 어리석음을 오늘 오전에 떨쳐 버리게 되어 후련하기 짝이 없었다.

규장각 소식

인도박물관 김양식 관장, 번암 채제공 학술기금 출연	07
집부도서 조사사업:	08
중국본 도서 조사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신진학자 초청 연구교류 사업 지원과제 선정	10
연구원 및 조교 선발	11
국제한국학센터 2020년 하반기 규장각펠로십 선발	11
규장각한국학워크숍	13
도서 나눔코너 설치	14
정보자료관리부 세척 및 지침 개정	15

규장각 소식

인도박물관 김양식 관장, 번암 채제공 학술기금 출연

18세기의 관료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의 6대 손부(孫婦)이신 인도박물관 김양식 관장님께서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번암 채제공 학술기금' 5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김양식 관장님은 규장각을 '번암 채제공 학술기금' 운영 기관으로 지정하여 채제공 관련 연구에 기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9월 16일에 총장실에서 김양식 관장님께 기금 출연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오세정 총장님과 김양식 관장님, 이현희 규장각 원장님, 채준 발전기금 상임이사님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채제공은 영조~정조대 핵심 정치가이자 남인(南人)의 영수(領袖)로서, 탕평(蕩平)을 비롯한 영·정조대의 여러 정책 추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채제공 관련 연구는 영·정조대 정치·사회·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규장각에서는 2021년부터 '번암 채제공 학술기금'을 이용하여 채제공 개인 연구만이 아니라 영·정조대 국정 운영 연구, 조선후기 남인(南人) 연구, 규장각 연구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조선후기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올해는 '번암 채제공 학술기금' 출연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11월 20일에 개최하고, 그에 맞추어 규장각 소장 채제공 관련 자료를 이용한 소규모 전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집부도서 조사사업: 중국본 도서 조사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집부도서 조사사업(구 귀중본도서 조사사업)은 규장각 소장 집부 도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한국학 연구자에게 양질의 서지 정보와 해제 정보, 주요 원문 텍스트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입니다. 2013년에 출범한 본 사업은 작년까지 7년에 걸쳐 규장각 소장 한국본 집부 도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그 중간 결과물로서 『규장각도서장서인보(奎章閣圖書藏書印譜)』의 출판과 ‘집부선본총서’ 약 400여 종의 문집에 대한 원문 이미지 전산화를 완수하였습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집부도서 조사사업에서는 중국본 집부도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올해에는 네 차례의 자문회의를 기획해 “중국본”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에 적합한 조사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2차 자문 중국본 도서의 서지사항 기술법에 대하여

지난 5월 6일과 5월 20일에 이루어진 제1차 자문과 제2차 자문은 옥영정 자문위원(한국학중앙연구원)을 모시고 중국본 도서 조사카드의 메타데이터 항목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자문을 통해 조사카드를 정비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사항이 상세히 논의되었습니다. 발행자 메타의 범주와 관련하여 ‘자(者)’는 ‘처(處)[공간]’의 의미를 포함하므로 기관·개인·장서류를 망라해야 한다는 점, 중국본에는 간행 정보가 기재된 편제면(編題面)이 다수 등장하는바 이를 하나의 독립된 메타 데이터로 새롭게 추가해야 한다는 점, 패기(牌記)와 편제면(編題面)을 구분해 서술해야 한다는 점, 출판과 관련된 정보가 기입된 도장이 목판본에 새겨 있을 경우 “인쇄인”(印刷印) 등의 명칭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 여러 문인의 작품이 함께 편성된 책의 경우 내용주기를 통해 ‘다권본’임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제2차 자문회의

제3차 자문

중국 ‘역외한적(域外漢籍)’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지난 6월 3일에 이루어진 제3차 자문은 김영진 자문위원(성균관대)을 모시고 중국의 ‘역외한적’ 사업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남경대학(南京大學) 장백위(張伯偉) 교수가 ‘역외한적’ 개념을 만들어낸 후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역외한적’ 사업의 성과와 현재 진행 상황, 아울러 역외한적사업을 고려한 규장각 중국본 도서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아가 『중국고적총목(中國古籍總目)』을 비롯하여, 『중국고적선본총목(中國古籍善本總目)』, 『중화재조선본총목(中華再造善本總目)』 등 선본 총목, 『북경대학도서관장고적선본총목(北京大學圖書館藏古籍善本書目)』 등 소장 기관별 총목, 『판서우기(版書偶記)』 등 개인 작성 목록, 『중국선본서제요(中國善本書提要)』, 『중화재조선본총목제요(中華再造善本總目提要)』 등 주요 공구서에 대한 소개 및 ‘중화재조선본수거고’(中華再造善本數據庫, <http://z.nlcpress.com/>), ‘중국고전문헌자원도항계통’(中國古典文獻資源導航系統, <http://www.kuizhangge.cn/>) 등 중국본 비교조사 시에 필요한 주요 웹사이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제4차 자문

중국본 해제
작성법에 대하여

지난 6월 26일에 이루어진 제4차 자문은 이창숙 자문위원(서울대)을 모시고 조사카드와 해제 작성 시 유의 사항 및 목록체계와 관련된 제언을 중심으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카드 작성 시 대상 도서의 지질(紙質)과 판본 판정은 동종본의 비교 조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 간행시기 및 간행지역과 관련하여 시대별·지역별 서체의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해제 작성 시 문헌의 편성방식은 반드시 서술되어야 하며, 시(詩)는 분체(分體)·편년(編年)·분류(分類) 등의 방식으로 서술하고, 문(文)은 원 자료에 나오는 문체명(文體名)을 그대로 취해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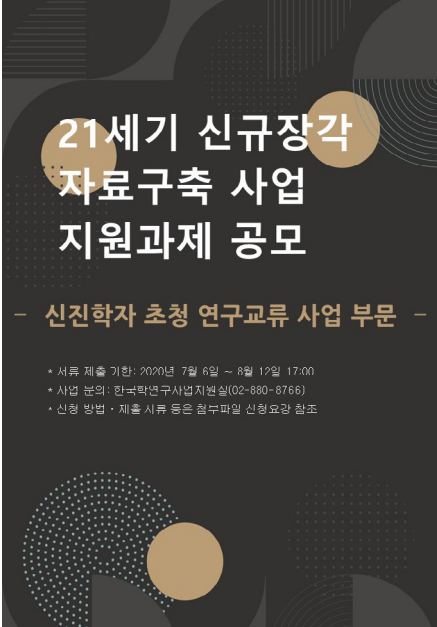
또한 중국, 대만, 미국, 일본의 주요 도서관에서 해당 도서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유일본 및 희귀본으로 잠정 판정해야 한다는 점, 중국본임에도 불구하고 도서번호에 ‘奎’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그와 반대로 한국본임에도 도서번호에 ‘奎中’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오류를 일괄 정리해 향후 간행지 기준으로 도서번호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나아가 중국본의 상세 분류는 현재 대륙의 분류 체계를 준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규장각 소장 중국본 도서 가운데 유일본은 우선적으로 영인할 필요가 있되, 역외한적 사업을 감안해 원본의 전산화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제4차 자문회의

신진학자 초청 연구교류 사업 지원과제 선정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연구사업위원회는 한국학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기존 '규장각 소장 자료 연구' 분야에 더하여 사회, 경제, 과학기술, 예술, 체육 등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주제를 망라하는 '한국학 제반 연구' 분야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 신진학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부문과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 사업
지원과제 공모**

— 신진학자 초청 연구교류 사업 부문 —

- 서류 제출 기한: 2020년 7월 6일 ~ 8월 12일 17:00
- 사업 문의: 한국학연구사업지원실(02-880-8766)
-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은 첨부파일 신청요강 참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연구사업위원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연구사업위원회는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 사업"을 기획 운영하며, 한국학 연구자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4가지 부문(연구총역, 저술지침, 연구플러스터,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을 마감한 것에 이어, 하반기에는 "신진학자 초청 연구교류 사업"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 사업"은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진학자 초청 연구교류 사업" 부문에서는 기존 <규장각 소장 자료 연구 5과제>에서 <규장각 소장 자료 연구 4과제 / 한국학 제반 연구 4과제>로 지원 과제 수 및 지원 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학내 모든 연구자들에게 지원과제 공모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모를 다음과 같이 재안내드리오니, 한국학 연구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 사업 신진학자 초청 연구교류 사업 부문	
신청 요건	2019년 8월 이후 한국학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2020년 8월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지원 분야	규장각 소장 자료 연구 4과제 내외 한국학 제반 연구 4과제 내외
지원 내용	연구기간(2020년 9월 ~ 2021년 1월) 동안 총 600만원 연구비 지원
지원 기한	2020년 7월 6일 ~ 8월 12일 17:00 (2020년 8월 24일 신청자 발표 예정)

올해는 사업 공고 기간을 연장하여 7월 6일부터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지원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학내 모든 학과, 연구자들에게 과제 공모에 대한 안내 공문과 메일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결과 역대 가장 많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심사를 통해 9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6과제가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올해 계약 체결된 신진학자 및 연구 과제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학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문	과제명	신진학자
1	이만부(李萬敷)의 『도동편(道東編)』과 이익(李翼)의 『도동록(道東錄)』을 통해 본 근기 퇴계학파의 "도동(道東)" 의식	이원준
2	규장각 소장본 『동학서(東學書)』 연구	박인규
3	조선 전기 회주본(徽州本) 간행과 유통에 대한 연구	이유리
4	한글본 『사소절』에 관한 연구	이상훈
5	『백석만성가』(白石謾成歌)의 창작 방식과 19세기 가사 향유의 한 단면	박영민
6	조선 궁궐 건축과 회화: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 수습 회화를 중심으로	김수진

연구원 및 조교 선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7월~9월에 여덟 분 연구원을 새로 임용하였습니다. 또한 2년간 수고해주신 기획연구부 조교 이준희 선생님이 시작하고 임희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구분
7월	이숙인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사업 책임연구원 신규임용
	이혜정	
8월	박선영	HGIS팀 객원연구원
	김현중	
	배항섭	
9월	양혜원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사업 책임연구원 신규임용
	최종석	객원연구원 (국내방문학자)
	김선영	편집간행부 연구원
	임희현	기획연구부 조교

국제한국학센터 2020년 하반기 규장각펠로십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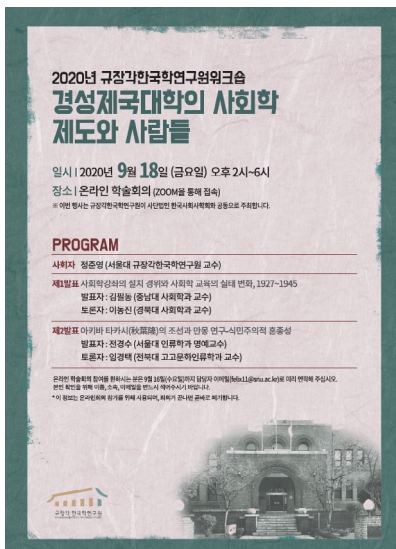
국제한국학센터에서는 2020년 하반기 규장각펠로십으로 총 1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구분	성명	국적	소속	연구 주제
펠로 (2명)	1 가 오 명 高明 Gao,Ming	중국	Tokyo Kokugakuin Univ. History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성병과 식민지 섹슈얼리티, 1881-1952
	2 민 원 정 Min,Wonjung	한국	Pontifical Catholic Univ. of Chile History	20세기 이후 한국대중문화 속 남성성의 표현
주니어펠로 (3명)	3 장 혜 윤 Chang,Haeyoon	한국	Univ. of Michigan History of Art	사진을 회화하다: 근대기 한국 사진과 회화 사이 체현적 관계의 형성과 전개
	4 박 용 준 Park,Yong-Jun	한국	Univ. of Cambridge Faculty of Education	한국 근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의 시민권 연구: 인민(人民), 국민(國民), 시민(市民) 개념에 대한 계보학적 탐구를 중심으로
	5 김 우 철 Kim,Woo-cheol	한국	Univ. of British Columbia Geography	포스트발전주의 시대의 발전주의 도시: 울산과 화성-평택 산업도시지역에서 국가-기업-노동 간 결합의 형성과 변형, 1960-2020

구분	성명	국적	소속	연구 주제
방문학생 (7명)	6 최 계 영 崔桂榮 Cui, Guirong	중국	Minzu Univ. of China 中国少数民族语言文学学院	서울경기 지역 평안도방언에 대한 연구: 재한 탈북자 및 재한 중국조선족을 중심으로
	7 양 헤 련 Yang, Katherine Hye-Ryun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 History	냉전시대 "기생"이라 불리었던 그녀들의 사랑과 야망
	8 로 저 스 Rogers, Tanner	미국	Univ. of Minnesota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	박정희 시대의 문학: 성장소설을 중심으로
	9 이 상 재 Lee, Sangjae	한국	Harvard Univ.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번역과 승인의 지성사: 19세기말 조선의 서학 연구
	10 최 지 나 Choi, GinaJunghee	미국	Princeton Univ. Art and Archaeology	도원경에 도달하다: 15세기 한국과 일본의 시와 그림
	11 허 정 윤 Hur, Jeongyun	한국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Practical Theology	장애와 사회적 계층에 대한 종교적 이야기: 한국의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에 대한 기독교와 불교의 가치관
	12 성 지 은 Sung, Jieun	한국	Univ. of British Columbia Art History, Visual Art & Theory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 현대 미술 속 행위와 오브제 연구
방문학자 (4명)	13 러 셀 버 즈 Burge, Russell	미국	Yale University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60-70년대 개발사회와 현대 서울의 형성
	14 나 탈 라 임 NatalyaYem	카자흐 스탄	Al-Farabi Kazakh Nat'l Univ. Faculty of Oriental Studies	한국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경험하는 민족 정체 성: 러시아권 결혼이주민 가정의 경우
	15 지 현 정 Chi, HyunJung	한국	Univ.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Managing the Distressed Mind in an Age of Anxiety: Psychiatric Knowledge and Practice in South Korea, 1945-2000
	16 후쿠오카 마사아키 福岡正章 Fukuoka, Masaaki	일본	Doshisha Univ. Faculty of Economics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조선 상업의 특징
KFAS 협약펠로	17 고 성 애 Gao, Xingai	중국	Yanbian University Faculty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이상인과 박종홍의 현대 신유학 비교
장서이용 (1명)	18 인 쇼 우 푸 殷守甫 Yin, Shoufu	중국	UC, Berkeley History	조선시대(1392-1897)의 공문서 교육과 현대정치사상의 세계적 형성

규장각한국학워크숍

이번 규장각한국학워크숍은 <경성제국대학의 사회학: 제도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은기수 부원장님의 개회사와 함께 시작되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준영 HK교수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김필동 선생님께서 <사회학강좌의 설치 경위와 사회학 교육의 실태 변화, 1927~1945>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셨고, 두 번째로 전경수 선생님께서 <아키바 타카시(秋葉隆)의 조선과 만몽 연구 - 식민주의적 혼종성>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셨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참여 인원수를 제한하고 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학술회의 현장을 송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학내외 참가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주 제	경성제국대학의 사회학 : 제도와 사람들
일 시	2020 년 9 월 18 일 금요일 오후 2 시 ~6 시
장 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 층 회의실(온라인 학회 ZOOM)
발표자	김필동(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 전경수(서울대 인류학과 명예교수)
토론자	이동진(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 임경택(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 01 은기수 부원장님 개회사
- 02 김필동 교수님 발표

도서 나눔코너 설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한국학 연구를 선도하는 학술지를 비롯하여 한국학총서, 목록·해제집, 영인간행 도서 등을 매년 출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 연구 성과가 담긴 이 소중한 자료들은 원내에서 오랜 시간 보존 및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학 관련 기관들에서 기증한 자료들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열람실 비치를 통해 원내 및 외부 이용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누적되는 한국학 관련 자료 중에는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 그 보관 문제가 여전히 큰 숙제였습니다.

이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보다 많은 분이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 나눔코너’의 신설 및 운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규장각 전시실이 위치한 지하 1층에 서가를 마련하여 원내 간행물 및 기증 자료 외에도, 연구원 구성원이 기증한 교양 도서까지 함께 모아 ‘도서 나눔코너’를 채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외부 이용자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지만, 이후 상황이 개선되어 다시 규장각 문이 열리면 해당 코너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실 관람객 및 시민강좌 수강생 등을 포함하여 규장각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께 ‘도서 나눔코너’의 자료는 무상 배포되며, 직접 필요한 자료를 골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하 1층 전시실 맞은편,
도서 나눔코너 서가

정보자료관리부 세칙 및 지침 개정

정보자료관리부에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정(이하 ‘규정’)」 개정(2019.04.17.)에 따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 관리 세칙(이하 ‘자료 관리 세칙’)」을 일부 개정(2020.08.27.)하였습니다.

자료 관리 세칙에서는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이었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약칭을 ‘연구원’에서 ‘규장각’으로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조문 내용을 현재 업무에 맞게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신설된 내용으로는 소장 자료의 대출 및 반납 관련 조항, 고문헌의 수리복원에 관한 조항, 규장각 자료 관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고문헌의 수리복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의 고문헌 보존을 위한 업무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세척에서 고문헌 기증과 관련된 유사성이 높은 조항들을 통합 정리하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 수증·수탁 관리 세척」도 제정(2020.08.27.)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고전적'을 '고문헌'으로 통일하여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증·수탁 대상을 고문헌으로 한정하여 관리의 범주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수증·수탁 자료의 선별 및 평가를 위해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수탁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세척 개정에 따라 하위 지침, 「고문헌 관외대여 지침」과 「자료 열람 및 복제 지침」도 개정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 표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보자료관리부는 이번 세척 및 지침 개정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도 더욱 실효성 있는 자료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지침 주요 변경 사항(자세한 내용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안내 참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 관외대여 지침」(시행 2020.9.15.)

- **신청방법** 전시 2개월 전 공문으로 신청
- **대여기간** 4개월(2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1회 연장 가능)
- **대여책수** 1회 5책 이내
- 대여자료의 디지털화에 대한 수수료 면제
- 반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의 관외대여 제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 열람 및 복제 지침」(시행 2020.9.25.)

- 일반 도서 대출 책 수 및 기간 확대

이용자 구분	대출 책수	대출 기간
교원 (교수·부교수·조교수·명예·석좌·기금·퇴직·초빙·HK·비전임·강사 등)	60책	90일
대학원 재학생 (교환·방문학생 포함), 직원(각 기관장이 임용한 자체직원 포함), 부속학교 교원, 조교, 연구원, 연수연구원, 박사후 과정생, 연구생 등록자, 각 기관장이 임용한 연구원, 규장각 펠로 및 방문학자	30책	30일
학사과정 재학생(교환·방문학생 포함), 계절학기 수강생(연구원 제외)	15책	14일
기타 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	허가 내용에 따름	

※ 대출 연장은 대출기간의 최대 3배까지 가능

- 자료 이용 수수료 기준 변경

제공 방법	대상 자료	수수료 (면당)	비 고
종이 복사	일반 도서	100원	※ 동일 종 5,000매 이상 기본 수수료의 90% 10,000매 이상 기본 수수료의 85% 15,000매 이상 기본 수수료의 80%
	마이크로필름	직접 200원	
		대행 300원	
이미지 파일	일반 고문헌	10,000원	※ 동일 종 100매 이상 기본 수수료의 90% 200매 이상 85%, 300매 이상 80% ※ 문화상품 제작 시 복제 수수료 외 상품 판매 총액의 5%
	일반 고문헌 외 자료*	30,000원	

* 일반 고문헌 외 자료: 국보, 보물 지정 자료, 귀중본, 특수 형태, 대형 자료 등

국제한국학센터 학술행사

2020년도 규장각 해외 한국학 저자특강	17
제109회 규장각 킬로퀴엄	17
2020년도 제14회 규장각 여름학교	18

학술행사

국제한국학센터 학술행사

국제한국학센터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해외한국학 저자특강과 여름학교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고, 전 세계 연구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규장각 사계는 올해 국제한국학센터의 학술행사를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2020년도 규장각 해외 한국학 저자특강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규장각 지하 강당에서 규장각 해외 한국학 저자특강 제3강, “소(小) 가족의 형성: 일제시대 민사소송 기록을 통해서 본 가족 제도의 변화 Rules of the House: Family Law and Domestic Disputes in Colonial Kore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9)”의 저자 임승연 교수님(Univ. of Colorado Boulder)을 모시고 당시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4강은 영국 Bath Spa University와 University of Leeds에서 강사 및 방문학자로 근무하는 Robert Winstanley-Chesters 박사의 “북한의 어류, 어업 그리고 공동체: 역동하는 물질들 Fish, Fishing and Community in North Korea and Neighbours: Vibrant Matters (Springer, 2019)”을 다루었습니다. 이 특강은 2020년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규장각 지하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Robert Winstanley-Chesters 박사는 북한과 주변 국가들의 어업과 관련된 역사와 지리를 소개하였는데,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북한의 어업 관련 통계를 제시하셨습니다.

제5강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고려하여 2020년 8월 28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만 진행하였습니다. University of Missouri - St. Louis의 Kang Minsoo 교수님을 모시고 『홍길동전』의 출간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불패(不敗)의 의적: 한국 문학, 역사, 문화 속에서 영웅 홍길동 Invincible and Righteous Outlaw: The Korean Hero Hong Gildong in Literature, History and Culture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9)”에서 저자 강민수 교수님은 『홍길동전』은 18세기 후반 생산되기 시작하는 한글로 쓰인 대중소설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19세기 이전에 쓰였을 수 없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제6강은 2020년 9월 29일 오후 2시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역시 온라인(ZOOM)으로만 진행하였습니다. 제6강에서는 중국 난카이 대학교의 쑤웨이궈(Sun Weiguo, 孫衛國) 교수님이 쓰신, 대만대-하버드 옌칭 학술총서 다섯 번째 책인 “존명(尊明)에서 봉청(奉淸)으로: 조선왕조 대청인식의 전환, 1627-1910 從“尊明反淸”到“尊明奉淸” -關於《從“尊明”到“奉淸”：朝鮮王朝對淸意識的嬗變(1627-1910)》的幾個問題》을 다루었습니다. 사회자로는 규장각 박현순 교수님께서, 토론자로는 경북대학교 홍성구 교수님, 중국 사회과학원의 이화자 박사님, 홍콩 중문대학의 Puk Wing Kin 교수님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제109회 규장각 킬로퀴엄

2020년 8월 10일 오전 10시 규장각 지하강당에서 제109회 규장각 킬로퀴엄을 진행하였습니다. 발표자로는 규장각 펠로이자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대학교 교수인 임승연 교수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임승연 교수님께서 규장각에서 진행 중인 연구를 “종손과 선산방매: 종중재산 분쟁을 통해 살펴본 일제강점기 재산권의 형성(Burial Mountains for Sale: Disputes over Lineage Property in Colonial Korea)”이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2020년도 제14회 규장각 한국학 여름학교

2020년도 제14회 규장각 한국학 여름학교는 전 세계적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36개 전 강좌를 온라인(ZOOM)으로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의 이점을 살려, 서울대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 대학의 교수님들도 강의로 초빙하였으며, 전 세계 38개국 260명의 수강생을 맞이하였습니다.

강의일정표

1주차 (6. 29. - 7. 03)					
제1강 6. 29. 10PM		Prof. Eugene PARK (University of Nevada, Reno)	Teching about Korea in Global History	영어 강의	실시간
제2강 6. 30. 11PM		Prof. 은기수	한국의 인구	한국어 강의	실시간
제3강 7. 01. 11PM		Prof. 이종묵	조선시대 문자생활과 한글/한문, 한시	한국어 강의	실시간
제4강 7. 01. 11PM		Prof. John Dimoia	Global Medicine and the Korean Peninsula, 1876–Present	영어 강의	실시간
제5강 7. 02. 11PM		Prof. 방민호	언어 · 민족, 그리고 '포스트 포스트콜로니얼'	한국어 강의	실시간
제6강 7. 02. 11PM		Prof. 강재호	Korean Media Culture Seoul and Urban Spectacles	영어 강의	실시간
제7강 7. 03. 11PM		Prof. 조영준	한국경제사	한국어 강의	실시간
제8강 7. 03. 10PM		Prof. 김병로	북한학 연구동향	한국어 강의	녹화

2주차 (7. 06. – 7. 10)					
제9강 7. 06. 11PM		Prof. Charles La Shure	Korean Folklore	영어 강의	실시간
제10강 7. 06. 11PM		Prof. 박태균	남북관계사	한국어 강의	실시간
제11강 7. 07. 11PM		Prof. 임종태	한국의 과학사	한국어 강의	실시간
제12강 7. 07. 11AM		Prof. Bruce Fulton (UBC)	Korean Literature and Literary Translation	영어 강의	녹화
제13강 7. 08. 11PM		Prof. 홍석경	세계문화와 디지털 문화 시대의 한류	한국어 강의	실시간
제14강 7. 08. 11PM		Prof. Ruediger Frank (University of Vienna)	German Unification as an Example for Korea? The Tricky Question of Comparability	영어 강의	녹화
제15강 7. 09. 11PM		Prof. 배은경	한국의 사회변화와 젠더	한국어 강의	실시간
제16강 7. 09. 11PM		Prof. 손유경	한국문학과 페미니즘	한국어 강의	실시간
제17강 7. 10. 11PM		Prof. 황재문	초기 재미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 전략 청의 소설과 생 애	한국어 강의	녹화
제18강 7. 10. 11PM		Prof. Hilary Vanessa Finchum-Sung (AAS Executive Director)	Korean Traditional Music: Aesthetics, Contexts, and Transitions	영어 강의	실시간

3주차 (7. 13. - 7. 17)					
제19강 7. 13. 11PM		Prof. 오유정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Instagrammable Places: Aesthetic Representation and Contested Urban Transformation	영어 강의	실시간
제20강 7. 13. 11PM		Prof. 김태웅	한국근대사	한국어 강의	녹화
제21강 7. 14. 11PM		Prof. 이숙인	조선시대의 여성	한국어 강의	녹화
제22강 7. 14. 11PM		Prof. Andrei Lankov (국민대학교)	North Korean Post- socialism in the comparative perspective: from below, from above, from outside?	영어 강의	실시간
제23강 7. 15. 11PM		Prof. 유성상	한국의 사회와 교육	영어 강의	실시간
제24강 7. 15. 11PM		Prof. 김경숙	고문서와 조선사회	한국어 강의	실시간
제25강 7. 16. 11PM		Prof. 조계영	규장각과 기록문화	한국어 강의	녹화
제26강 7. 16. 11PM		Prof. 장진성	김홍도(1745-1806년 이후)의 생애 및 예술에 대한 재해석	한국어 강의	녹화
제27강 7. 17. 11PM		Prof. 연재훈 (SOAS)	Everything you want to know about the Korean Language and the Korean Alphabet	영어 강의	실시간

4주차 (7. 20. - 7. 24)					
제28강 7. 20. 11PM		Prof. 최종성	동학사상과 의례	한국어 강의	실시간
제29강 7. 20. 11PM		Prof. Ju Oak Kim (Texas A&M International University)	Korean Television: Industrial Structure and Creative Practice	영어 강의	실시간
제30강 7. 21. 10PM		Prof. 이효상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Tense and Aspect in Korean Language	영어 강의	실시간
제31강 7. 21. 11PM		Prof. 정용욱	한국현대사	한국어 강의	실시간
제32강 7. 22. 11AM		Prof. Dafna Zur (Stanford University)	Writing the Self in North Korea: from Anne Frank to Defector Memoirs	영어 강의	실시간
제33강 7. 22. 11PM		Prof. 이정환	성리학에 대한 기초적 소개	한국어 강의	실시간
제34강 7. 23. 11PM		Prof. 성상환	A Cold War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German Federal Archives	영어 강의	녹화
제35강 7. 23. 11PM		Prof. 조은수	한국의 불교	한국어 강의	실시간
제36강 7. 24. 11PM		Prof. 정요곤	한국의 고지도와 한국사 연구	한국어 강의	실시간

전체 참가자는 평균적으로 약 18개의 강의를 수강하여, 전체 강의의 절반 이상을 이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5개 이상의 강의를 수강한 참가자 179명에게 수료증을 발급했으며, 36개 전 강의를 완강한 참가자 3명에게는 특별수료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여름학교를 마친 뒤 진행된 설문조사(133명 참여)에서는 규장각 한국학 여름학교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참여자의 67%가 '매우 좋다', 30%가 '좋다'로 평가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수강생들이 멀리서도 온라인으로 다양한 분야의 최근 한국학 관련 이슈들을 접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었다는 소감을 남겨주었으며, 다음 해에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아래는 저희 규장각 국제한국학센터에 별도로 소감문을 보내주신 분들의 글입니다.

2020 여름 규장각 한국학 세미나 소감



박 옥 경

캐나다

okkyungpak1@gmail.com

이 세미나는 나의 한국에 대한 지식의 공백을 여러모로 매워주는 기회가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한국근대사, 동학사상, 한국 현대사, 북한학, 신유학, 여성학 등등... 제가 한국에서 났지만,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 19가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지만, 저에게는 큰 기회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부모와 함께 이민으로 한국을 떠난 지 (1964) 50년도 더 되었습니다. 현재 캐나다 몬트리알에 거주하며, 저의 교육은 캐나다 (토론토와 퀘벡) 에서 수료했습니다. 저의 전공은 사회인류학이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미낭까바우 종족) 머슬림 모계사회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1986). 10년 전에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은퇴 후, 한국에 자주 나갈 기회가 생기며, 제주도의 잠녀 (해녀) 들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부계사회의 잠녀들의 사회적 위치가 수마트라의 모계사회 미낭까바우 여성들과 여러모로 비슷한 것을 보고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기회로 한국의 역사에 대해 많이 읽을 기회가 있었고, 최근에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에서 은퇴하신 사회인류학자 전경수 교수가 서두를 쓰셨습니다) 제주도 잠녀에 대해서 읽고 알게 되며, 한국의 기나긴 식민지 역사와 『중심과 변방』의 관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내가 너무도 모르는 한국의 역사, 철학에 대해서 더 알아야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마침 규장각의 한국학 세미나 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왕 이 서

중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 석사과정

안녕하세요! 서울대 국제대학원 한국학 전공 석사과정 재학 중인 왕이서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유익한 강의를 많이 제공하시고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규장각한국학연구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학을 전공하는 저에게는 규장각 한국학 여름학교에 참여한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오프라인 수업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온라인으로도 세계 최고의 한국학 학자들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자와 학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심화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관계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박태균 교수님의 「남북관계사」, 김병로 교수님의 「북한학 연구 동향」, 그리고 은기수 교수님의 「한국의 인구」 등 강의들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름학교에서 한국의 역사, 정치, 사회에 관한 강의뿐만 아니라 한국의 종교, 경제사, 과학사, 한류 문화, 조선 시대의 한문과 한시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제공되었으니 한국을 전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토마스 슬레시악

Tomasz Sleziak, SOAS

저는 토마스이고 저는 요즘에 한국학 박사 연구를 졸업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올해 규장각 한국학기관의 여름 워크숍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팬데믹 때문에 이 워크숍이 온라인만 참여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에게 이런 상황이 사실 마침내 꽤 편리했습니다. 저는 강의 30개 쯤 중에서 17강의를 선택했는데 주제가 일반적으로 역사나 철학이나 문학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워크숍동안 인터넷 연결이 좋고 강사들의 설명을 대부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논의가 많았고, 이 행사가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Ji Chunyu

중국,
Lanzhou University

저는 중국 란주대학교에서 온 대학원생 Ji Chunyu 입니다. 2020 규장각 한국학 여름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번 서머스쿨의 커리큘럼은 문학과 예술, 문화와 역사, 언어와 미학, 사회와 교육, 국제 문제, 여성과 이동, 종교와 의약 등 한국 연구의 많은 면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설화', '한국의 사회와 교육', '한국의 미디어 문화' 등 과정에서 교수들은 한국의 사회, 역사문화를 넓고 깊이 있게 전면적으로 강의 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의 풍요, 역사의 두터운 성과, 사회의 빠른 발전을 심각하게 이해합니다. 특히 '한국텔레비전의 산업구조와 제작문화' 강좌 에서 Ju Oak Kim 교수는 한국 현대 영화와 드라마 문화가 번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계화의 새로운 시대에 한국의 영상 문화는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영상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한국 문화 정신에 뿌리를 둔 측면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저는 많은 깨우침을 받았고 한국의 사회 인문 상황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Dafna Zur교수의 'Writing the Self in North Korea: from Anne Frank to Defector Memoirs'과정과 Bruce Fulton 교수의 'Korean Literature and Literacy Translation' 과정에서 한국문학과 관련한 비교연구와 번역문제 등은 전형성을 띠고 있으며 기타 언어의 비교문학과 번역연구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 강좌가 제공하는 사고 방향과 연구 방법은 선도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있어 저의 현재 '일대일로' 연구, 한국문학 연구 및 문헌의 번역과 응용에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소개한 '시제와 상: 한국어에서의 시간적 속성 표현' 과정은 저처럼 한국어 공부 단계에 있는 학생들 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학습과 교류를 통해 저는 서로 다른 민족의 문화 역사 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문학예술에 대해 더욱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장각 한국학센터의 여름학교의 국제교류 및 연구 플랫폼이 차질 없이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Mi Siqi

중국,
Shandong Univeristy

서울대학교 규장각국제한국학센터가 주최한 2020규장각 한국학 여름학교에 참석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4주간의 여름학교는 역사와 문학, 사회 등 다양한 방면에서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사, 경제사, 고문서, 고지도, 조선시대 여성 등에 관한 강의는 한국 역사의 연구 이론과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문서를 이용하여 조선 왕조의 사회 상황을 연구하며 고지도를 통해서 조선시대의'천하 관'을 연구하거나,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연구하는 방식 등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HGIS 시스템도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인구와 성별 등 사회연구, 한류문화, 텔레비전산업 등에 관한 강의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방면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여성문학, 사회변화 와 젠더 등의 강의는 근대 이후 한국의 여성의 처지와 여성의 노력 및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류 문화 강의에서는 교수들이 한류 문화의 발전 현황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며 한류 문화는 실제로 한국 음악, 메이크업, 음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산업이 세계화를 위한 노력과 한류 문화에서 소셜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학교에서 교수들이 진지하고 엄정한 태도로 강의해주셨으며, 늦은 시간에도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질문에 답했습니다. 세계 각국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규장각국제한국학센터 선생님들은 책임감이 크셨고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여름학교 운영해 준 규장각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규장각을 직접 찾아뵙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
Katekim@colostate.edu

저는 AATK 북미 한국어 교육학회 페이스북에서 규장각 한국학 센터에서 하는 여름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하기 전부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동경대학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10년간 아이들 키우고 살다가 대학에서 일본어 강의를 했습니다. 일본어 강의를 했던 첫 해부터 한국어가 저의 대학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3년간의 학장과의 인터뷰 끝에 한국어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지만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여름학교 강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모릅니다.

한국 전통악기들 이름이며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국어가 어떻게 일반인에게 쓰였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쓰여진 책들 이름이며 게임까지 알게 되었고 인류에 관한 것들 경제, 문화, 사회, 북한문제, 과학, 역사 모든 강의가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의 인구감소가 앞으로 미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아이 많이 낳아서 애국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했습니다.

노트에 적어가면서 모든 강의를 들었는데 한 달간 강의를 끝나고 나니 제 노트 한 권을 다 쓸 정도로 양이 많았습니다. 이제 나이 오십을 바라보다 보니 그 많은 강의들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모든 강의마다 적어 나간 노트를 열 때면 새록새록 생각이 다시 납니다.

그렇게 많은 교수님들을 방학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하루하루 정말 기대 되는 강의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외국에서 그것도 코로나 상황에 제 집에 앉아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희망도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아침이었지만 한국에서는 12시가 넘는 시간까지 전세계의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밤늦게까지 직접 강의해 주신 교수님들께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나도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공부해서 한국의 문화를 더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강의를 통해 인품이 느껴졌고 열정도 느껴져서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교수님들 영향을 받아 한국의 문화와 역사 정치 모든 것들이 세계에 많이 알려지길 바랍니다.

강의를 다 듣고 한 달이 지난 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벅찼는지 아마 모르실겁니다. 아침마다 제가 강의 들을 준비에 분주하니 재택근무를 하던 남편도 그렇게 좋냐며 놀릴 정도였으니까요.

항상 언어만 가르치다가 여러 분야의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귀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한국학에 더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학기가 시작되어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항상 여름방학 한 달 동안 들었던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제 삶이 풍부해진 느낌이 들고 힘이 납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만 주신다면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에게 광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나마 강의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좋은 강의들 어려운 시기에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재보존관리 및 계승 사업

규장각 문화재 보존 관리 및 계승 사업

고지도 자료의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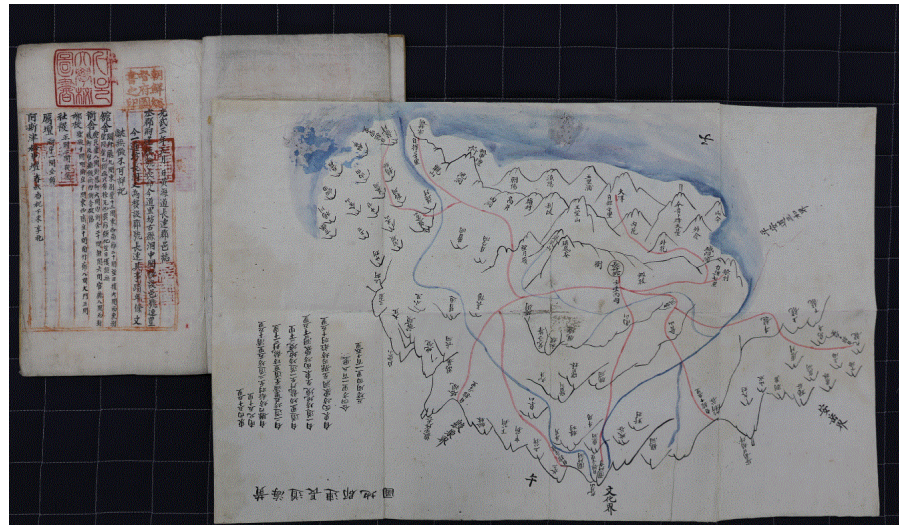
정보자료관리부에서는 규장각 소장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고, 교육과 연구 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규장각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여름호에 이어 2020년 추진 사업 중 보존처리 연구에 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보존처리 연구

고지도 보존수리를 위한 기초조사 사업은 자료조사 및 정리, 소장 고지도의 모든 이미지를 목록화 하는 작업과 함께 지리·고지도를 포함한 한국 지도사·역사·회화·문화 등 각 분야 연구자들에게 규장각 고지도의 목록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내용과 특징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공하고자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고지도 목록 및 상태조사 결과 총 621종 4,274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중국지도를 기반으로 1,000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바탕으로 고지도의 원형 연구 자료 활용 및 규장각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서지사항, 해제를 수정 검토하고 고지도 목록집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리지 수록 지도류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정리 및 기초조사 사업

본 조사사업은 1994년 발간된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上·下)을 기준으로 경부(經部)·사부(史部)·자부(子部)·집부(集部)의 시각 자료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서적 내 이미지자료 도(圖), 채색도(彩色圖), 판화(版畫), 초상(肖像), 도설(圖說), 삽도(插圖), 도판(圖版) 등의 소재를 파악하여 시각자료의 양상 및 각부(各部)의 서적에 실려 있는 총체적 양상을 정리하여 목록화하고자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회화자료 기초조사 사업을 통해 495권 23,324개의 시각자료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020년에는 추가적으로 일본본 사부(史部)와 자부(子部)의 시각자료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규장각 회화자료 목록집 및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를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회도역대신선전(繪圖歷代神仙傳)

01 권8의 후선고(猴仙姑) 삽도

02 권8의 방녀(龐女) 삽도



지류문화재 수리복원을 위한 전통재료 연구개발 사업

규장각 소장 자료는 대부분 전적 및 회화류에 속하는 유형으로 특히 족자나 두루마리 등 말아서 보관하는 형태의 경우 본래 바탕 직물과 새로 보존처리 된 보견(保絹) 간의 수축률, 질감이 달라 열화가 진행된 손상부 주변으로 2차 손상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짠 수직견(手織絹)을 인공적으로 열화시켜 본래 바탕직물의 강도와 수축률, 질감과 유사한 열화견을 개발하여 유물 보존처리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올해는 1차년도로 우리나라 서화유물 특성에 맞는 전통재료(열화견) 개발을 위한 1차 자료조사 및 유물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화유물에 사용된 화견의 직조형태, 밀도, 견사의 굵기 등에 관한 연구조사 및 수직화견(손으로 짜는 회화용 직물)제작 기법연구, 제직, 열화방법조사를 위한 차후 과정에 대한 바탕이 됩니다.



견직 유물의 바탕재 조사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 및 기타산엽본 밀랍본 복원장비 제작연구

규장각 소장 조선왕조실록 중 614책은 밀랍본으로 전체실록의 약 39%를 차지합니다. 편찬 당시 한지의 손상을 방지하고 충해와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지 표면에 밀랍을 도포 하였던 것입니다. 밀랍본 실록의 약 20%정도는 셀룰로오스 분자량이 감소되고, 변색, 백화현상, 균열, 꺾임, 고착 등 생화학적·물리적 변성이 관찰됩니다.

본 사업은 밀랍 내 존재하는 밀랍지 열화 및 산화의 원인이 되는 밀랍의 지방산 성분을 제거하고 추가적인 탈랍한지의 강도보강 처리를 위한 장비를 제작하는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향후 연구가 완료되면 조선왕조실록 등 탈랍 및 지방산 성분 제거를 요하는 보존처리 방법에 대한 밀바탕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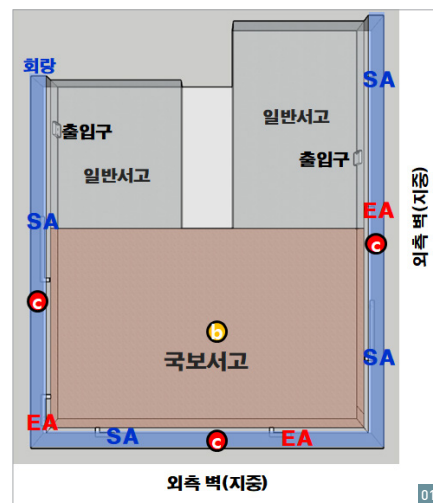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장비 일부

조선왕조실록 보존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공간계획 수립연구

규장각 소장 정족산사고본 실록은 실록 중에서도 당대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이 한지에 밀랍을 도포하여 제작한 밀랍본은 한지와 밀랍, 먹 등이 결합된 복합재질로 일반적인 고전적과는 매우 다른 독특한 형태의 전적류입니다.

이러한 밀랍본의 경우 열화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인자(밀랍 성분의 조성 및 표백 유무 등)와 외부 인자(온·습도, 빛, VOCs, 미세먼지, 미생물 등)에 의해 밀랍의 경화, 고화, 고착 및 균열뿐만 아니라 박락 백화현상 등이 발생되므로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의 보존 및 열람을 위한 최적의 환경조건 및 공간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01 공기질 측정 위치
- 02 국보서고 환경 측정



규장각 도서읽기

『한국문화』 91호	32
새로 읽는 우리 고전총서	32
규장각 자료총서	32

규장각 도서읽기



학술지 『한국문화』 91호

한국문화 91호
2020/9/30 발행

특집 : 동아시아 불교와 고려대장경

하정민, 房山石經, 契丹大藏經, 그리고 高麗大藏經

강호선, 13~14세기의 대장경 인출·유통과 고려대장경

바바 히사유키, 고려대장경 인출본(印出本)에 보이는 목서의 검토
세조대 인출본을 중심으로

양혜원, 일제시기 고려대장경 조사 및 인경 사업
1910년대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 반

이동화, 正祖의 朱熹 봉당론 독해와 활용

심재우, 조선 후기 수령의 법적 지위와 형벌권 행사의 실상
『목민심서』를 중심으로

김소라, 음양안과 주판으로 본 19~20세기 전결세 수취 양상
경상도 연양현 삼동면 금곡리 사례를 중심으로

서동일, 1930년대 초 신민지 사건의 파장과 유교계의 변동

조희영, 김석문의 『易學二十四圖解』에 나타난 새로운 占筮法 연구

배홍철, 육망의 계보학 -정육과 성육의 관리술을 중심으로

새로 읽는 우리 고전총서

저자 및 역자	제 목	소속	연구 주제
유본에 저 장지연 역해	새로 읽는 우리 고전 23 한경지락: 19세기 서울의 풍경과 풍속	2020.07.07	아카넷
장훈 저 황재문 역해	새로 읽는 우리 고전 24 아희원람: 19세기 조선의 상식 사전	2020.07.15	아카넷

규장각 자료총서

저자 및 역자	제 목	발행일	출판사
당윤희·오수형 장유승 역주	육주약선·육고수권: 조선 정조가 편정한 당 재상 육지의 국가 경영책	2020.07.30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규 장 각 한 국 학 연 구 원